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윤여탁**

— < 次 例 > —

- | |
|--|
| I. 반성(反省, Reflection): 기능적 문식성의 지양(止揚) |
| II. 대안(代案, Alternative): 문화적(cultural) 문식성 |
| III. 확장(擴張, Extension): 매체(媒體, media) 문식성 |
| IV. 전망(展望, Perspective): 비판적(critical) 문식성 |
| V. 통합(統合, Integration): 문식성의 생태학(生態學) |

I. 반성(反省, Reflection): 기능적 문식성의 지양(止揚)

1980년대 후반에 한국 교육계, 1990년대 초반에 국어교육계에 본격적으로 소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999: 1183-118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 280-28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2013: 1064-1066)된 문식성(文識性)이라는 용어는 ‘literacy’의 번역으로 ‘문해(文解)’, ‘문해력’, ‘문번력(文辨力)’, ‘문자 해독 능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식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축자적 의미), ‘직업적, 시민적, 공동체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문자를 다루는 복잡한 기능 세트’(UNESCO), ‘문

* 이 논문은 제17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제학술대회(2015년 10월 24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ttp://dx.doi.org/10.17313/jkorle.2015.36.535>

자 언어를 매개로 한 필자와 독자와의 만남'(노명완, 2008: 18)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식성이라는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문화'라는 용어처럼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개념의 합성어¹⁾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향하고 기르고자 하는 모든 능력들은 '~ 문식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문식성은 활성도가 아주 높은 개념어이다. 이러한 특징은 문식성의 개념 범주가 넓고 효용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는 동시에 아직도 학문적, 교육적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 젊은(?) 학문 영역이라는 사실도 짐작하게 한다.

어떻든지 문식성은 문자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장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상태'인 문맹(文盲, illiteracy)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이후 문식성의 개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학적 능력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담화 능력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예를 들면 "문식성은 다양한 문맥과 관련한 인쇄된 자료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1) 정혜승은 문식성 교육 관련 문헌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들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정혜승, 2008a: 162)

- ①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정치적 문식성(political literacy), 경제적 문식성(economic literacy), 민주적 문식성(democratic literacy)
- ② 컴퓨터 문식성(computer literacy), 디지털 문식성(digital literacy), 기술 문식성(technoliteracy), 복합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 수 문식성(numerical literacy)
- ③ 기능적 문식성(functional literacy),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 감정적 문식성(emotional literacy)
- ④ 잠재적 문식성(emergent literacy), 강력한 문식성(powerful literacy), 삼차원 모델 문식성(three-dimensional literacy)

생산하고, 의사소통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문식성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지식이나 잠재력을 개발하고, 좀 더 넓은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의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다.”²⁾(UNESCO Education Sector, 2004: 13)거나 “문식성은 담화와 그 활동에 대한 비판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상황 의존적이면서 실제적인 학습과 문화적 체험을 강조하는 ‘상황 의존적 사회적 활동 모형(situated social practice model)’을 지향한다(C. Durang & B. Green, 2001).”라는 관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랭크셔(C. Lankshear)는 『변화하는 문식성(Changing Literacy)』이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에서 문식성의 변화 맥락을 ‘문식성에 대한 비판적, 문화적 전망’, ‘문식성과 사회 정의’, ‘문식성, 새로운 기술과 과거의 패턴들’(C. Lankshear, 1997)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후 랭크셔와 노벨(M. Knobel)은 문식성의 범주와 개념을 재검토하게 된 계기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교육 운동에 끼친 프레이리(P. Freire)의 비판교육 이론의 영향, 1970년대 초반에 실시되었던 미국 대규모 문식성 검사 결과 밝혀진 극적인 발견인 광범위한 성인 문맹에 대한 진단³⁾, 1980-90

2) Literacy is the ability to identify, understand, interpret, create, communicate and compute, using printed and written materials associated with varying contexts. Literacy involves a continuum of learning in enabling individuals to achieve their goals, to develop their knowledge and potential, and to participate fully in their community and wider society.

3) 랭크셔와 노벨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에서 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진단에 의해 2001년에 제정된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이후 학교 교육에서 문식성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였으며, 그 양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C. Lankshear & M. Knobel, 2006: 11-28)

① ‘literacy’ replaced ‘reading’ and ‘writing’ in educational language, ② literacy became a considerable industry, ③ literacy assumed a loftier status in eyes of educationists, ④

년대 언어와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전망에 대한 기대와 인기의 증대(C. Lankshear & M. Knobel, 2006: 9-11)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문식성의 개념과 문식성 교육의 관점은 초창기 논의에서 중시했던 ‘기능적 문식성’에 대한 반성과 지양을 통해서 문화적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한국의 국어교육학계 역시 이러한 문식성 개념과 문식성 교육의 관점을 받아들였지만, 문식성 수용의 짧은 역사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즈음 국어 교과목의 목표를 두고 전개되었던 ‘사용’으로서의 국어교육과 ‘문화’로서의 국어교육 논쟁(윤여탁, 2008: 531-53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쟁은 국어교육에서 ‘문식성’ 개념을 재검토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미국이나 영국에서 있었던 문식성 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소개되면서 국내의 국어교육에서도 문식성 교육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 작업(박인기, 2002; 박인기, 2008 ; 정혜승, 2008a ; 정혜승, 2008b)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문식성 개념을 국어교육계에 소개했던 노명완과 문식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박영목, 2003: 1-14)를 시작했던 박영목, 이 두 사람의 회갑을 기

‘literacy’ came to apply to an ever increasing variety of practices, ⑤ literacy is now being defined with the word ‘new’.

4) One was the rise to prominence of Paulo Freire’s work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the radical education movement of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A second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literacy’ as a widely used concept in education was the dramatic discovery — although many called it an *invention* — of widespread illiteracy among adults in the US during the early 1970s.(……) A third factor was the increasing development and popularity of a *sociocultural* perspective within studies of language and the social sciences.

넘어서 2008년에 간행된 『문식성 교육 연구』(한국문화사)는 한국에서의 문식성 개념의 혼란상(混亂相)과 문식성 교육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의 징후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은 한국 국어교육에서 문식성 교육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어교육학계 문식성 교육관의 변화는 문식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박영목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문식성을 수행적 측면(문자의 결합 방식에 대한 이해, 문자소와 음소의 대응 방식과 대응 정도에 대한 이해, 표기 규칙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이해, 글씨쓰기와 컴퓨터 자판 이용하기 등), 문화적 측면(문식 활동과 문식 학습이 단순히 언어와 기술 체계를 작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 이상의 것), 비판적 측면(맥락과 역사와 힘에 대한 명시적 고려가 중시됨)으로 설명하여, 기능적 문식성을 넘어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박영목, 2008: 48-50).

이처럼 한국의 국어교육은 문식성 교육에서 기능적 문식성을 지양하고 극복하는 흐름과 과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능적 문식성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이라는 한국에서의 문식성 논의 과정을 대안, 확대, 전망이라는 핵심어로 정리하여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문식성 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문식성 개념의 통합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변화 양상에 영향을 준 문식성 교육의 국제적인 경향,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쟁점을 같이 짚어 보고자 한다.

II. 대안(代案, Alternative): 문화적(cultural) 문식성

20세기 후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 사회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같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민자의 증가, 후기 산업사회의 자유방임주의 등의 영향으로 성인 문식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은 시민 교육의 맥락에서 미국인이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할 문화적 지식, 즉 역사, 문학(화), 전통 등의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을 알아야 한다는 문화적 문식성 개념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미국인이 알아야 할 5,000 여개의 문화 지식 항목을 제시하였다(E. D. Hirsch Jr., 1988).

이러한 관점에서 허쉬(E. D. Hirsch Jr.)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social justice)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문식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문화적 문식성은 일종의 세계 지식 또는 배경 정보 등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읽고 쓰는 기술적 능력을 넘어서서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정보와 지식, 맥락 등을 습득하는 것(E. D. Hirsch Jr., 1988: 1-2)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식성 개념은 개인이 사회·문화

5) Ultimately our aim should be attain universal literacy at a high level, to achieve not only greater economic prosperity but also greater social justice and more effective democracy.(……) What she(Professor Jeanne S. Chall - 필자 주) calls world knowledge I call cultural literacy, namely, the network of information that all competent readers possess. It is background informations, stored in their minds, that enables them to take up a newspaper and read it with an adequate level of comprehension, getting the point, grasping the implications, relating what they read to the unstated context which alone gives meaning to what they read.

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으로 ①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②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③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A. C. Purves 외, 1994)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이 강조되는 흐름에는 영국과 미국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의 성과와 지향(指向)도 작용하였다. 특히 비판적 문화론의 관점에서의 확대된 문화 개념과 문화소통론을 강조한 영국 버밍엄 학파는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교육의 장(場)으로 끌어들었다(윤여탁, 2007: 71-83). 또 20세기 후반기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대중문화의 영향력 증대는 문화교육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대중문화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문화론과 매체언어 교육론은 각각 후술하게 될 비판적 문식성과 매체 문식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대외적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에서의 문화적 문식성 논의는 수직적 맥락에서 전통으로 작용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수평적 맥락에서 일상생활의 소통에 작용하는 문화, 즉 전통문화와 현실 문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박인기는 문화적 문식성을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일상의 현재적인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교섭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고정형이라기보다는 유동적 진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인 것(박인기, 2002: 27-28)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을 문화의 존재 양태(문식성의 내용 범주로 통시적인 전통 문화의 공간인지, 공시적인 당대 문화 공간인지를 밝힌 것), 문화 인지의 효과(문식성의 작용 효과로 기능적 소통 효과와 비판적 소통 효과가 있음), 문식성의 활용 차원(지식 차원 활용과 전략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음)에

서 재개념화(박인기, 2002: 34-39)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문식성 교육 연구』에서 박영목과 박인기에 의해 정리되었다. 즉 문식력과 기술 정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한다(박영목, 2008: 50)거나 문식성과 문화의 관계를 ‘지식’으로서의 문식성과 문화, ‘기능’으로서의 문식성과 문화, ‘소통적 실천’으로서의 문식성과 문화, ‘사회·문화적 작용’으로서의 문식성과 문화(박인기, 2008: 87-94)로 구체화하여 설명하였다. 한국의 국어교육도 필요성 차원의 문제제기를 넘어 이러한 문화교육의 관점과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교육이 실천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교 교육에 적용되었다.

이어서 한국에서의 문화적 문식성에 관한 논의는 고전문학 교육 분야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창조적 변용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재개념화하여 교육 내용을 제안하게 되며,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와 교육에서 중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던 다문화 교육의 맥락에서 다문화 문식성의 개념과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발전하였다. 전자의 경우 박인기의 논의를 원용하여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서로 교섭하는 교집합적 부분이 문화적 문식성 교육이 주목해야 할 지점(황혜진, 2005: 375-376)”, “고전과 현대의 문화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문화적 문식성(서유경, 2009: 173)”, “문화의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와 ‘현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는 별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수직적 범주로서 전통의 가치는 현재적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서보영, 2014: 77)”거나 “단일한 역사 공동체의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수용 모델)에서 학습자 집단이 타집단과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 작용하는 언어활동(공유 모델)을 포괄(박은진, 2015: 152)”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성, 사회 계층, 인종, 민족, 문화, 종교, 언어 등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교육의 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문제라는 다문화교육의 논의(A. Bank & C. A. M. Banks, 2007, 1-2)를 수용하여, 다언어 사회에서의 문식성을 다문화 문식성이라고 명명하고, “일반적인 문식성 개념에 민족 또는 인종의 차이, 성별의 차이, 개인의 차이, 계층의 차이 등 다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문식성(김혜영, 2010: 36-46)”이라고 개념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허쉬의 문식성 개념을 원용하여 “타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행위로(……) 다문화적 경험을 지향하고 ‘평등’과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최숙기, 2007: 295)”으로 규정하였다.

필자 역시 다문화 문식성을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언어와 문화를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언어 능력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행하는 능력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능력(윤여탁, 2013: 7-21)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다문화 문식성은 태생적으로 평등, 사회 정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비판적 문식성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둘을 분리해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문식성은 국어교육, 사회교육 등의 교과에서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현되어 실질적인 교육적 실천과 연구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적 문식성은 수직적 범주로서의 전통문화와 수평적

범주로서의 현실 문화로 각각의 측면에서 문학교육⁶⁾과 만나게 되며, 이러한 문학교육에서 추구하는 문학 능력은 문학 문식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능적 문식성이나 문화적 문식성 등 문식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개념들이 다분히 학습자의 인지적(認知的) 능력과 관련된 인지적 문식성의 영역이라는 것과는 달리 문학 문식성은 정의적(情意的) 문식성이라는 영역과 맥락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즉 문학 문식성, 정의적 문식성의 측면에서 문화적 문식성의 본질과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지 문화적 문식성 논의는 기능적 문식성을 지양하는 맥락에서 대안으로 선택되었으며, 문화의 개념이나 범주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비판적 문식성이나 매체 문식성과 연관되어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 독창성이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문학 문식성이나 정의적 문식성과 연관시켜 논의를 진전시킨다면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확장(擴張, Extension): 매체(媒體, media) 문식성

앞의 장에서 문화 연구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사회 기술 문명의 발달은 매체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소통의 수단이나 방법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

6) 문식성과 문학교육의 관계를 ‘자발적 문식성’, ‘기능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논의(이재기, 2009: 125-140)도 있다.

다. 이와 같은 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식성 개념은 전통적인 인쇄물을 읽고 쓰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부터, 현대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방식인 신매체(new media)의 특징인 디지털, 복합양식을 읽고 쓰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문식성(digital literacy)이 문식성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C. Lankshear & M. Knobel, 2006: 21).

이러한 논의는 영국의 비판적 문화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랭크셔(C. Lankshear)와 노벨(M. Knobel)은 이러한 문식성을 신문식성(New Literacy)이라고 명명하고, 그 개념을 현대사회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식 방식(Recognized ways), 의미 있는 내용(Meaningful content), 코드화된 텍스트(Encoded text), 대화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or as members of) Discourses](C. Lankshear & M. Knobel, 2006: 61-93)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신문식의 신(new)을 신기술[New technical stuff: 디지털 (digitality) 등]과 새로운 기풍(New ethos stuff: 블로그나 팬픽 등)의 실천(C. Lankshear & M. Knobel, 2006: 73-93)이라는 맥락에서 상세화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의 매체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국외적 추세의 영향을 받아 대략 두 개의 맥락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⁷⁾ 즉 전자의 경우에 정현선이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매체 교육에 대한 문화교육의 시각을 소개하면서 매체 교육과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였다(정현선, 2007). 그리고 후자의 경우, 옥현진이 과

7) 한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언어는 7차 교육과정(1997)부터 도입되었으며, 2007 교육과정에서 ‘매체언어’라는 교과목으로 독립하였지만 교과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2009와 2011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각 교과목의 성취 기준(내용)이나 체계로 자리를 잡았으며,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목으로 재진입하였다.

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는 의사소통 환경은 탈인쇄 매체(post typographic)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문식 활동의 맥락에서 논의될 전개하였다. 그는 매체 문식성을 ‘존재론적으로 전혀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 분배, 수용 방식(옥현진, 2008: 228)’으로 재개념화하였으며, 정혜승은 랭크셔와 노벨의 신문식성(New literacy)⁸⁾이라는 개념을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체계를 이해하고 조작하며, 기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비판하고, 디자인하며 유통하는 실천적인 힘’이라고 정리하고, 이 신문식성은 의사소통 방식과 텍스트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사회적 실천(practice)’을 강조한 개념(정혜승b, 2008: 156-157)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서의 ‘매체언어’ 교육에서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2008년 『매체언어와 국어교육』에서 정리되었으며, 이 책에서는 매체 문식성의 세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언어(복합양식 리터러시): 문자, 음성, 시각, 소리, 영상 등이 어우러진 복합양식의 언어/복 양식 리터러시의 개념/어린이의 복합양식 소통
- 문화(문화적 리터러시): 문화적 가치와 전통, 대중문화/선호된 해석, 교섭된 해석, 저항적 해석/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읽기와 쓰기의 균형/매체를 문화 생산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
- 성찰(비판적 리터러시): 인터넷 매체의 기술적 특성이 소통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윤여탁 외, 2008: 24-44)

8) 이순영도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매체 환경의 변화’”, “학교 밖 문식 활동의 강화”, “청소년 문식성”의 부각”이라는 영향으로 ‘신(新) 문식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이순영, 2010: 88-92).

특히 이 책은 매체의 복합양식(multimodal)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일어난 읽기-쓰기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적 함의(含意)와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9) 정현선은 매체 문식성을 복합양식 문식성¹⁰⁾이라고 규정하고, 국어 수업에서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은 매체로 인해 읽기·쓰기에 일어난 변화를 제재 및 읽기·쓰기 활동의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스나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의 장르를 국어 수업의 새로운 제재로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문식 활동의 주체로서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읽기 교육, 그리고 자신의 글을 읽을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히 포함하고 배치할 수 있는 텍스트 생산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 쓰기 교육이 필요(정현선, 2014: 64)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문식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복합양식 텍스트인 매체의 교육 방법을 세 가지 활동으로 구체화하여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① 학생들 스스로 문식 활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을 위해, 문식 활동 일지 작성, ② 지면 공간을 기반으로 한 복합양식 텍스트인 그림책에 대해 행동유도성에 초점을 두어 독자로서 반응하고 감상하는 읽기 활동, ③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학생이 직접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양식 텍스트를 표현

9) 이러한 점은 책의 목차인 ‘국어교육에서 매체를 바라보는 관점’, ‘국어교육과 매체언어 교육’, ‘매체의 발달에 따른 읽기·쓰기 방식의 변화’, ‘뉴스와 광고의 비판적 수용과 생산’, ‘디지털 시대 문학·예술의 지향과 향유’, ‘시 텍스트의 변화와 교육’, ‘서사 텍스트의 매체 변화와 교육’, ‘디지털 전자의 언어 윤리 및 태도와 가치관’, ‘미디어와 청소년 문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 서로 다른 양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정현선, 2014: 67)을 의미한다.

하고 소통하는 활동(정현선, 2014: 65-88)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교육에서 매체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문식 활동의 대상인 인쇄물을 넘어 복합양식인 새로운 매체로 그 대상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식 활동도 복합양식을 생산(표현)하고 소비(소통)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매체 문식성은 한국의 문식성 교육 논의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적 실천상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교재라는 하드웨어(hardware) 차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oftware) 차원인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실천되고 있다.

IV. 전망(展望, Perspective): 비판적(critical) 문식성

미국의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이 문화적 문식성을 내세워 미국의 선도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여, 미국의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은 비판적인 맥락에서 미국의 사회, 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비판적 문식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브라질 빈민가 출신의 교육학자인 프레이리(P. Freire)는 교육운동에서 이러한 비판교육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주었다. 아울러 그람시(A. 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론 등의 영향을 받은 프레이리와 지루(H. Giroux) 등 진보적인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담론을 기를 수 있는 비판적 문식성 신장을 교육의 핵심으로 하는 비판교육이라는 교육의 정치학을 주장하였다.

프레이리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해방이며, 굶주리고 고통 받는 민중을 해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중 스스로가 정치

적·사회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질서에 순응(順應)하도록 가르치고 ‘침묵의 문화’에 빠지도록 가르치는 ‘은행 저금식’ 교육이 아닌 ‘문제제기식’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민중은 대화와 같은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세계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식 교육은 인간주의적이고 해방적인 프락시스(praxis)를 지향하므로, 지배에 종속된 민중이 해방을 위한 싸움에 나서도록 자극.(P. Freire, 1970: 97-104)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프레이리의 비판교육 이론에 기초한 비판적 문식성은 텍스트의 표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텍스트의 목적, 필자의 의도, 관점을 분석한 후, 텍스트와 필자 너머에 있는 실제 세상(real world)을 읽어내고, 텍스트를 통해 작동하는 힘과 불평등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해방 문해’에 근거(P. Freire & D. Macedo, 1987: 140-162)를 두고 있다. 또한 비판적 문식성은 텍스트 내용의 수동적인 수용자를 넘어 독자와 작가 사이의 권력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는 독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독자에 의해 수행된다(P. Freire, 1970; M. McLaughlin & G. L. DeVoogd, 2004: 14)¹¹⁾고 보았다.

프레이리와 더불어 대표적인 비판교육 이론가인 지루(H. Giroux)는 “기법의 숙달이라는 점에서 문해를 규정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

11) Critical literacy views readers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reading process and invites them to move beyond passively accepting the text's message to question, examine, or dispute the power relations that between readers and authors. It focuses on issues of power and promotes reflection, transformation, and action.

한 것이든 아니든 비판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읽는 능력 또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문해의 개념을 넓혀가야 한다.(……) 진정한 문해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먹이는 식의 권위적 구조가 사라진 사회관계와 대화를 포함한다. 지금 이 역사적 순간에서, 읽기는 문해를 비판적 의식이자 사회활동을 위한 기초 발판으로 보는 진보적 접근법을 개발한 기회를 제공(H. Giroux, 1988: 179-180)”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적 문식성은 그 정의와 목적, 실천, 정책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인식함으로써 참여자 자신들의 의식을 성찰하게 하는 것과 참여자들이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체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H. Giroux, 1993: 367-377)¹²⁾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경우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의 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며, 이러한 점은 문화적 문식성을 주창한 허쉬(E. D. Hirsch Jr.)의 책제목을 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프로벤조(E. F. Provenzo Jr.)의 저서(*Critic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Ought to Know*, 2005)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어떻든지 문식성 논의에서 비판적 문식성은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등의 모든 형식 안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을 의미하였다. 이는 단지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를 평가하는 능력(T. L. Harris & R. E. Hodges, 2005: 49)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진보적

12) Henry Giroux explained that critical literacy involves raising participants' consciousness by making them aware of others' experiences(current and past), causing them to take action to confront and dismantle inequity in literacy definitions, purposes, practices, and policies.

인 비판교육 이론의 도입 이전에는 ‘비판적 읽기’, ‘비판적 사고’ 등의 개념으로 국어교육에 적용되고 있었으며, 비판교육 이론과 더불어 한국의 문식성 교육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제기 단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이후 한국에서의 비판적 문식성 논의는 초기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학술 담론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이재기는 문식성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과 비판적 문식성 교육 내용 제안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데올로기 읽기’, ‘해체적 읽기’, ‘상이한 장르 생성하기’ 등을 제안하고 있다.(이재기, 2005) 또 이재형은 비판적 문식성을 인지적 문제해결 전략으로서의 비판적 문식성,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행위로서의 비판적 문식성, 실천적·해방적 주체를 지향하는 비판적 문식성(이재형, 2012)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논의에서 김유미는 비판적 문식성 논의의 배경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념적인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었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직되고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희석되었으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메시지를 읽고 그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김유미, 2014: 36)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문식성을 비판적 읽기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¹³⁾함으로써, 여전히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판적 읽기의 교육

13) 이에 비하여 이순영은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은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 행위나 문식 활동을 힘이나 권력의 구현 양상(practice of power)으로 해석한다. 비판적 문식성은 Paulo Freire나 Pierre Bourdieu의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활동, 문식 환경, 나 자신과 타인의 인식 속에 숨어 있는 권력·이데올로기·부조

적 의의와 비판적 읽기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문식성 논의를 종합하고 있는 천경록의 논의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독서를 개인적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하며,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두고 있다. 비판적 자세로 텍스트를 대하고, 필자의 잠복된 의도 파악, 성찰, 프락시스(실천) 등을 중요시한다. 프락시스란 이론과 성찰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천경록, 2014: 19-20)라고 설명하였다. 즉 독서교육에서 “비판적 문식성은 비판적 자세로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을 둘러싼 저자, 독자,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깊은 지점’을 읽어내는 독서 능력”(천경록, 2014: 31-32)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국어교육에서 비판적 문식성 논의는 실천,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비판적 문식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 읽기나 비판적 사고로부터 멀리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판적 문식성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이해와 표현 활동에서 이런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제한(制限)되고, 언어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판적 문식성 교육 논의가 주로 비교적 수동적인 활동 위주인 읽기(독서교육)나 듣기(화법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진 점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했다.

이처럼 그동안 한국에서의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만 무성할 뿐 비판적 문

리·역압·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한다.”라고 정리했으며, 비판적 읽기를 비판적 문식성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이순영, 2010: 100-101).

식성 교육이 실천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비판적 문식성 교육에서 실천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문식성 교육의 내용 측면에서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와 같은 새로운 문식성 신장을, 문식 활동의 측면에서는 쓰거나 말하기와 같은 표현교육 활동을 통해서 비판적 문식성을 능동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V. 통합(統合, Integration): 문식성의 생태학(生態學)

이 글은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을 반성과 전망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국외에서의 문식성 교육 논의, 한국 국어교육에서의 문식성 교육 논의와 문식성 교육의 쟁점을 반성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반성으로서 기능적 문식성의 지양’, ‘대안으로서 문화적 문식성’, ‘확장으로서 매체 문식성’, ‘전망으로서 비판적 문식성’으로 도식화하여 정리하였다. 이제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문식성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통합으로서의 문식성 교육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으로서의 문식성 교육의 지향은 기능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매체 문식성 등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체를 활용해서 기능적, 문화적, 비판적 문식성을 지향함으로써 매체 문식성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문식성을 학교급별, 학년별 위계를 고려해서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 부합하는 교육적 실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합으로서의 문식성 교육에는 문식성의 생태학(ecology)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와 다른 교육 기관은 문식성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화된 국가 모두에게 적용된다.(D. Barton, 2007: 317-329)”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생태학이 유기체(有機體)라는 특성에 기초를 둔 학문 용어임을 고려한다면, 문식성의 생태학이라는 개념은 문식성 교육의 통합적 방향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또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교육의 보편적인 방향인 동시에 전 인류적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문식성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도 통합으로서의 문식성 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통합으로서의 문식성은 학교를 넘어 전 사회, 전 세계적으로 그 적용 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읽기나 쓰기의 기능이나 전략으로 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문식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식성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D. Barton, 2007: 17)”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식성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를 넘어 성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문식성(adult's literacy)(옥현진, 2013: 101-129)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식성 연구 경향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에 대한 반성과 흐름, 전망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문식성 교육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이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인 문식성 교육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밝히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유미(2014), 「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pp.32-37.
- 김혜영(2010), 「다문화 문식성의 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노명완·이차숙(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
- 노명완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박영목(2003),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1-14.
- 박영목(2008), 「21세기 문식성의 특성과 문식성 교육의 문제」, 노명완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pp.48-77.
- 박은진(2015), 「국어교육의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핵심 개념소로서 ‘공유된 지식’의 성격에 주목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7, pp.133-168.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pp.23-54.
- 박인기(2008), 「문화와 문식성(文識性)의 관계 맺기」, 노명완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pp.78-98.

* 이 논문은 2015. 11. 20. 투고되었으며, 2015. 11. 2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12. 4.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12. 13.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서보영(2014),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pp.75-101.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9),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3), 『한국어교육학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유경(2009), 「관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이청준의 <남도사랑> 연작을 중심으로」, 『관소리 연구』 28, 관소리학회, pp.171-196.
- 옥현진(2008), 「다중모드 문식성」, 노명완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pp.224-253.
- 옥현진(2013), 「성인 문식성 연구 동향 분석」, 『작문연구』 19, 한국작문학회, pp.101-129.
- 윤여탁(2007), 「비판적 문화 연구와 현대시 연구 방법」, 『한국시학연구』 18, 한국시학회, pp.71-83.
- 윤여탁(2008),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신청어문』 36, 서울대 국어교육과, pp.531-552.
-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 출판부.
- 윤여탁(2013),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 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pp.7-29.
- 이순영(2010),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의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pp.87-103.
- 이재기(2005), 「문식성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pp.115-158.
- 이재형(2012), 「비판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읽기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 논문.
- 정현선(2007),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미디어 분석과 자아 표현 기

- 능 훈련의 사례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혜선(2014),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의와 방법」, 『우리말 교육 현장 연구』 8-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61-94.
- 정혜승(2008a), 「문식성(Literacy) 교육의 쟁점 탐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한국교육평가원, pp.161-185.
- 정혜승(2008b),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 26-4, 한국교육과정학회, pp.149-172.
- 천경록(2014),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pp.7-35.
- 최속기(2007), 「국어 교과서 다문화 제재 선정에 관한 연구 민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pp.287-319.
- 황혜진(2005),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16, 한국어교육학회, pp.375-470.
- Banks A. & Banks C. A. M(ed)(2007),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John Wiley & Sons Inc.
- Barton D.(2006), *Literacy: An Introduction to the Ecology of Written Language*, Blackwell Publishing, 김영란 외 옮김(2014), 『문식성: 문자 언어 생태학 개론』,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Durant C. & Green B.(2001), “Literacy and the New Technologies in School Education”, Fehring H. & Green P.(ed), *Critical Literacy: A Collection of Articles from the Australian Literacy Educators’ Association*, Intrados Group.
- Freire P.(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Continuum, 남경태 옮김(2002), 『페다고지』, 그린비.
- Freire P. & D. Macedo(1987),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Praeger, 허준 옮김(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학이시습.

- Garcia G. E.(2003), "Introduction: Giving Voice to Multicultural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Willis A. I. et al(ed), *Multicultural Issues in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p.1-11.
- Giroux H.(1988), *Teachers as Intellectuals: Toward a Critical Pedagogy of Learning*, Bergin & Gravy, 이경숙 옮김(2001), 『교사는 지성인이다』, 아침이슬.
- Giroux H.(1993), "Literac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C. Lankshear & P. L. McLaren(ed)(Foreword by Maxine Greene), *Critical Literacy: politics, praxis, and the postmoder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367-377.
- Harris T. L. & Hodges R. E.(2005), *The Literacy Dictionary*,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irsch Jr.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Random House Inc.
- Lankshear C. & McLaren P. L.(ed)(Foreword by Maxine Greene)(1993), *Critical Literacy: politics, praxis, and the postmoder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ankshear C.(with Gee J. P., Knobel M. and Searle C.)(1997), *Changing Literacy*, Open University Press.
- Lankshear C. & Knobel M.,(2006), *New Literacy: Everyday Practices and Classroom Learning*(2nd ed.), Open University Press.
- McLaughlin M. & DeVoogd G. L.(2004), *Critical Literacy: Enhanc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Text*, Scholastic.
- Provenzo Jr. E. F.,(Foreword by Michael W. Apple)(2005), *Critic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Ought to Know*, Paradigm Publishers.
- Purves Allan C., Papa Linda, Jordan Sarah(ed)(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vol 1), Scholastic.
- Weil D. K.,(1998), *Towards a Critical Multicultural Literacy: Theory and Practices for Education for Liberation*, Peter Lang.

Willis A. I. et al(ed)(2003), *Multicultural Issues in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UNESCO Education Sector(2004), *The Plurality of Lite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Programmes*.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62/136246e.pdf>)

■ 국문초록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윤여탁

이 글은 먼저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외에서의 문식성 교육 논의 과정과 국내에서 있었던 문식성 논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국어교육계에서 있었던 문식성 교육의 논의 경과를, 반성으로서 기능적 문식성의 지양, 대안으로서 문화적 문식성, 확장으로서 매체 문식성, 전망으로서 비판적 문식성이라는 내용으로 항목화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식성 교육에 대한 정리된 논의를 통해서 한국 국어교육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즉 문식성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기능적, 문화적, 매체, 비판적 문식성을 통합하는 문식성 교육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식성의 생태학적 접근이나 성인 문식성에 대한 관심이 그 대표적인 예다.

[주제어] 문식성, 기능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반성, 대안, 확장, 전망, 통합, 문식성의 생태학, 성인 문식성

■ Abstract

Reflections and Perspectives of Literacy Education in Korea

Yoon Yeotak

In order to discuss the reflections and perspectives of Korean literacy education, this study explores literacy education considerations both within and beyond outside of Korea. Specifically, the literacy education proces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cademia is reviewed based on four categories: a sublation of functional literacy as a reflection, cultural literacy as an alternative, media literacy as an extension, and critical literacy as a perspective.

Based on this review, an aim for literacy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suggested. In other words, rather than merely the existing literacy education problem a recommendation is made to integrate functional, cultural, media, and critical literacy into literacy education(e.g., ecology of literacy and adult' literacy). The ecology of literacy and adult' literacy are the typical literacy education examples suggested herein.

[key words] Literacy, Functional Literacy, Cultural Literacy, Media Literacy, Critical Literacy, Reflection, Alternative, Extension, Perspective, Integration, Ecology of Literacy, Adult's Literacy